



화려했지만 어두웠던 삶의 생생한 고백 압구정동 카페경영 등 이색체험 눈길끌어

— 「뚝대에 불붙이는 여자」 낸 이석영씨

이 책 그 사람

“지금요? 주머니속이 비니까 마음도 따라 비네요.”

최근 출간된 「뚝대에 불붙이는 여자」

(서울기획)를 쓰고 나서 또다시 은둔생활로 돌아간 이석영씨(34)가 함축성있는 말 한마디로 근황을 설명한다. 이 대답은 그동안의 삶이 얼마나 고되고 험난했는가를 알게 모르게 암시한다.

이석영씨는 독자들에게 이미 낯익은 사람이다. 자신의 체험에서 비롯된 ‘여죄수 여감방’이라는 글과 압구정동에서 위세를 떨치던 재벌 2세들의 행태를 쓴 ‘한국 샹투르 2세들의 향락생활’이란 글을 「월간조선」에 기고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이씨는 그때를 회고하면서 이 책에도 수록된 ‘여죄수와 여감방’은 저자 본인의 이야기라 숨길 것도 없지만, 재벌 2세들에 관한 글 만큼은 “그때는 나도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는데…….”하면서 후회막심한 표정을 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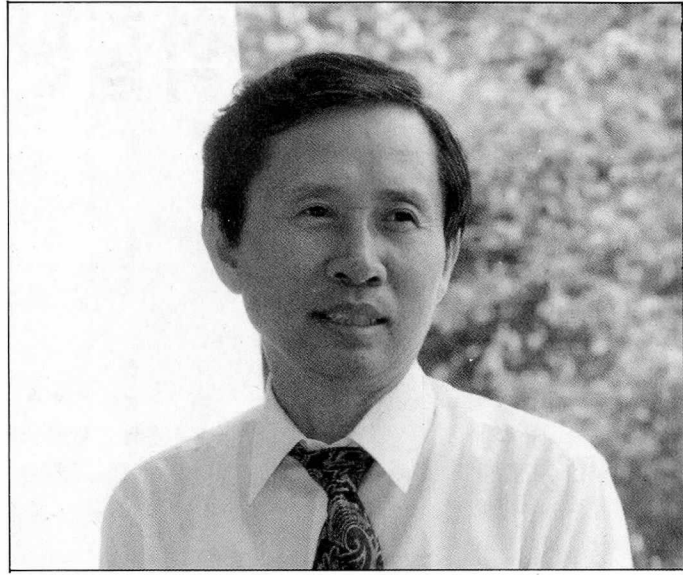
이 책 「뚝대에 불붙이는 여자」를 출간하고서도 “아직까지도 정리되지 않은 일도 많아서 텅텅하게 얼굴을 들고 나설 계체가 못된다”며 나서기를 극구 사양하는 눈치다. 그러나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고백한 이 책에 대해서 만큼은 자신이 있다. 대개 자기 삶을 책으로 엮어낸 생각이라면 약간의 과장과 부풀림이 있을 법도 한데 이 책은 전혀 그런 구석이 없다. 책날개에 수록된 저자의 이력에 먼저 눈길이 가는 것도 이 때문인듯, 누구든지 또박또박하게 적힌 이력 너머에서 한 사람의 인생극장을 유추하는 “정한” 재미를 맛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석영씨의

삶은 도무지 “평탄함”이란 게 없었다.

성균관대 생활미술과 졸업 후 카피라이터와 그래픽디자이너로 일한 것, 여기까지의 이력은 평범 그 자체이다. 이 시기에 그녀는 ‘조일광고상’ 수상과 ‘그로리치’ 일러스트레이션전 출품 등으로 그래픽디자이너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기도 했다. 지금 그녀가 처한 상황때문에 재능이 빛을 발하지 못할뿐, 그녀가 탁월한 디자이너였음을 입증하는 이력이기도 하다. 이 시점에서 그녀는 결혼을 한다. 그러나 남편은 도박에 빠져들고 빛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어쩔 수 없이 그녀는 명동과 압구정동에서 외상 디자인을 하지만 그것만으로 감당기 어려운 빚이었다. 86년부터 압구정동에서 카페와 디스코텍을 운영하기도 했다. 앞에서 잠깐 말한 바와 같이 그녀가 “아직은 사람들 앞에 나설 때가 아니”라는 것은 이 사업들이 모두 실패로 돌아갔고 부도 수표로 인해 8개월 간 수감생활을 했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남편과는 이혼까지 했다. 그녀는 “이혼 후에도 도박 빚을 떠맡은 건 남편에 대한 사랑이라기 보다 연민이 더 컸다”고 솔회한다. 그리고 부도 수표로 인해 타격을 받았을 사람들에게겐 미안할 따름이라는 얘기도 전한다.

현재 그녀는 간간히 글을 쓰면서 생활하고 있다.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 게 외롭긴 하지만 자신을 옥죄기만 하던 생활에서 벗어난 것을 생각하면 이 상황도 감응하다고. 바짝 바른 체구를 가진 그녀, 웃을 땀 뚝뚝 흘려서 그녀는 오늘도 소박한 삶을 꿈꾸고 있다.

— 배은희 기자



지나온 삶의 삽화 애뜻한 望郷의 시편 마음속에 각인된 ‘생애의 표정’ 들 펴보어

— 「약속의 땅」 펴낸 박이도씨

이 책 그 사람

돌이켜 보면 한국 현대사는 끊임없는 고통 속에서 헤어지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분단이라는 굴레를

만들어낸 과거의 인물들은 어찌할 수 없이 겪어야 할 고통이었다 하지만 오늘날 이 땅에 뿌리를 두고 사는 사람들은 연유도 모른 채 반쪽인생을 감내하며 살아간다.

시집 「약속의 땅」(시와시학사)을 펴낸 박이도 시인(56) 또한 반쪽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다. 평북 선천에서 태어난 ‘소년 박이도’가 선천의 등에 업혀 38선을 넘은 것은 국민학교 2학년 때였다. 그 이후 머리가 히끗히끗한 ‘박이도 시인’으로

성장했으면서도 그는 고향을 끝내 잊지 못하는 듯하다. 그로서는 이제 여덟번째 시집이지만 시집 전편에 흐르는 고향에 대한 생각은 절절하기만 하다. 고향이라는 유토피아를 잃은 아픔 때문이리라.

「약속의 땅」은 박이도 시인이 살아온 삶의 실상을 삽화로 엮어 낸 시편들로 묶여 있다. 그러나 여느 시집의 시처럼 큰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 대단한 수사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집은 시인의 과거를 충분히 엿보게 해준다. 박이도 시인이 시집 ‘自序’에 쓴 다음과 같은 말은 시집을 이해하는데 매우 많은 도움을 준다.

“서사적 드라마로 엮는다면 아무래도 허구성이 가미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바로 그 점이 싫어 이런 생애의 표정을 낱말로 펴본 것이다. 손바닥을 펴 손금을 들여다보듯, 자질구레한 인상이지만 필자의 마음속에 각인이라도 된 듯 지워지지 않는 영상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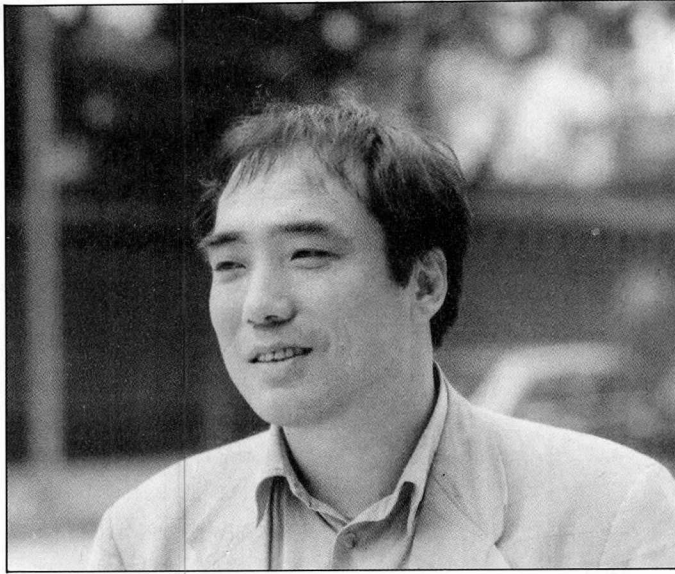
서시를 포함해 모두 61편의 시가 수록된 이 시집은 두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한다. 그 하나는 한국의 현대사와 맞물린 인간의 생존방식이고 또 하나는 태어남에서 죽음으로 이르는 보편적 인간의 삶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가지가 서로 괴릴 수 없음을 박이도 시인은 말한다. 시편의 배열만 보더라도 박이도 시인의 의도는 쉽게 다가온다. 시집 1부에서는 ‘서시’ 다음으로 ‘탄생’이라는 시를 놓고 그 다음으로는 해방 이전의 시대를 배경으로 한 시를 두고 있다. 2부는 8·15 광복부터 6·25까지의 경험담을 형상화한 시이며, 3부에서는 인간이 마침내 가야 할 땅, 오래전부터 이미 정해진 약속의 땅을 이야기하고 있다.

… 달이 뜨면 어둠이 보이듯/그림자 세월에 갈수록/도깨비 춤추듯 고개를 넘어가네/너머에 산으로 가네/바다로 가네/한 알의 사과처럼 허공에/떠 있네, 보이네 무엇이/지상에 보이네”라면서 세상을 관조하는 나이가 되었지만 박이도 시인의 마음은 아직 여리다.

“고향에 가고싶은 마음이야 간절하지요. 그리움 대신 이변에 낸 시집을 보며 고향 생각을 하는 것으로 위안을 삼지요.”

전세계 이목이 모두 북한에 쏠려 있는 상황에서 박이도 시인의 상상력 역시 휴전선 위를 비상하고 있는 듯하다. 가고픈 고향을 향하여.

— 이성수 기자



순례자적 열정과 직관의 유럽 문화지도 유럽시각예술의 정수 함축한 박물관기행

— 「이미지와 디자인을…」 낸 정진국씨

이 책 그 사람

한 나라를 제대로 여행하려면 반드시 공공박물관이나 화랑엘 들어가 보란 말이 있다. 너무 교과서적이어서 진부한 그 얘기의 이유인즉슨, 그곳에는 그 나라의 과거와 현재를 볼 수 있는 직관의 한 단면이 있기 때문이다.

시각 조형물에 관한 '해설자'이자 동시에 '창작자'인 정진국(41, 사진작가·미술평론가)씨의 첫 저서 「이미지와 디자인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비룡소)는 바로 그 직관의 단면들로 모자이크된 유럽의 문화지도이다. 그림이나 조각, 건축, 생활공예 할것없이 시각 조형물의 그 모든것을 '이미지'와 '디자인'의 광범위한 개념 속에 포괄시킨 그는 "근대적 도시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는 오늘날 미술과 디자인"의 고향인 '유럽'을 당연한 듯 순례지로 택한다. 그리하여 이 책은 유럽의 동과 서인 파리에서 프라하, 남과 북인 마드리드와 밀라노를 축으로 영국,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등은 물론 스위스의 작은 산간마을에 이르기까지 시각예술의 다양한 실체를 찾아나선다. 화폐박물관 가족박물관 시계박물관과 같이 특정 품목의 변천사를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전문박물관은 물론 개인의 컬렉션, 특정시기의 미술품만을 모은 미술관과 루브르와 같이 며칠을 봐도 다 못볼 거대한 종합 박물관에 이르기까지 발에 채일 정도로 널려 있는 유럽인 까닭에 그 글은 당연히 "반짝일 수밖에 없는 것."

"많은 대학생들이 유럽으로 보름씩 한달씩 배낭여행을 떠나면서도 그 흔한 박물관을 왜 안가는지 모르겠다"고 안타까워하는 그는

"관람료가 비싸다"는 그들의 항변을 일축한다. 여행이 인식의 지평을 넓히기 위한 활동이라면 '디자인혁명 시대'라 부르는 현대를 이해하는 키워드를 두고서 외관만을 훑고 오는 여행은 고생을 즐기려는 게 목적이라면 몰라도 참의미를 잃은 것.

제목에서도 나타나듯 그는 名畫를 보면서도 그 예술적 가치만을 논하지 않는다. 다 빈치의 모나리자상이 가진 5% 미완성의 신비에 주목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길게 물고 늘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장난감과 담뱃갑, 편집과 활자, 화폐와 자동차와 같은 사사로운 용품, 포스트모던 건축을 비롯해 군사제품의 디자인, 고문기구의 디자인, 밀라노의 패션디자인과 같은 실용 미술에 녹아있는 그들의 높은 문화적 안목을 간취해내는 데 더 역점을 두어 풍부한 성찰을 전해준다.

"사실 우리가 이미지문화에 얼마나 침몰해 살고 있는지는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성형외과의 남발과 같이 일견 멀어보이는 현상도 개인의 시각 이미지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 것이고, 막대한 자본을 쏟아부은 광고도 상품의 이미지 전략에 다름아니며, 치레로서의 의상이나 각종의 축하연에 넘쳐나는 꽃다발도 다 이미지 문화의 중요도가 더해가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

그가 유럽의 시각·디자인 예술에서 찾아낸 핵심은 "훌륭한 취향이란 반드시 까다롭고 화려한 데에만 있지 않다" "네덜란드 디자인의 장점은 좋은 디자인이 반드시 값비싼 것일 필요가 없다는 신념을 꾸준히 실천해온 데 있다" "별것 아닌 것을 대단한 것으로 만드는 솜씨" ...등의 실용적이면서도 높은 품격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 정혜옥 기자



'식품민족학' 관점에서 조명한 김치의 모든것 김치문화의 풍속사적 면모 등 관심끌어

— 「김치, 한국인의 먹거리」 낸 주영하씨

이 책 그 사람

「양철북」의 작가 권터 그라스는 또다른 장편소설 「넙치」에서 감자 조리법으로 인류의 역사를 조명하고 있다.

독일학계에서 축적된 식품인류학(Food Anthropology)에 대한 연구성과를 밀거름으로 그 명작이 산출됐음은 분문가지다.

신간 「김치, 한국인의 먹거리」(도서출판 공간 刊)는 한국 국가대표 음식물인 김치를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 고찰한 재미있고도 중후한 연구서이다. 역사학의 특수분과인 식품사를 민중생활사의 한 분류로 본때있게 편입시키고 있다.

저자 周永河씨(33, 김치박물관 학예연구원)는 음식을 문화로서 이해하고, 총체적인 관점에서 음식문화를 바라볼 수 있는 '食品民族學'이란 새로운 학문분과를 주창했다. 따라서 김치를 종합적으로 다룬 우리나라 최초의 책인 「김치, 한국인의 먹거리」는 우리나라 식품민족학의 비조로 등극한 셈이다.

그의 논의에 따르면, 김치란 채소절임음식의 통칭이다. 중국의 스추안파오차이(四川泡菜), 일본의 즈게모노(漬物), 독일의 사우어크라우트, 동남아의 아차르, 네팔의 쇼지 등이 모두 김치의 다른 이름이다. 외국 채소절임음식(김치)과 우리의 김치가 다른 것은 조리기술이 출중하고 맛이 좋다는 점에서 찾아진다. 그것은 곧 한국근세사의 비극, 민중생활의 애환과 동계를 이룬다.

"김치에 고추가 들어가고, 김치의 종류나 조리법이 지금의 모습으로 발전해간 때는 약 2백년 전쯤이다. 김치 기술의 발달과 민중의

고통은 동전의 양면에 가깝다. 다른 반찬이 없어서 김치의 종류와 모습이 다양해졌다. 소금을 구할 수 없어서 대체방부제인 고추를 넣었다."

이렇듯 저자는 '김치의 중국기원 및 전파론'을 부정한다. 세계 각국의 채소절임음식, 곧 김치는 각 민족의 생태적 조건에 의해 자생되었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다. 이어서 김치가 한국민족의 상징음식이 되기까지의 눈물겨운 과정을 추적했다.

그밖에도 김장, 김치의 지역성, 김치조리법, 김치 관련유물을 총체적으로 다루어 가히 우리의 김치문화를 한눈에 살필 수 있도록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풍속사적 면모는 연구서임에도 불구하고 읽는 재미를 담뱃 제공한다.

이러한 김치조리법을 다룬 章에서 계량단위의 변천사를 살피는 일도 흥미롭다. 조선말에는 "도둑도둑하게" "켜켜" "가득히" 등의 형용어가 쓰였다면, 일제시대에는 섬, 말, 홉, 되 그리고 '사라'라는 단위도 등장한다. 요즘 대학교재에는 tbsp, g, C 등의 단위가 쓰인다.

周씨는 대사회적 발언도 김치의 이름을 빌린다. "김치맛만큼 사회의 다양성이 인정되면 역동적인 사회가 될 것"이라든가, 조급증에 걸린 세태를 "잘 익은 김치, 잘 익은 사회"란 캐치 프레이즈로 풍자하는 것이다.

저자는 이 책을 시발로 하여, 앞으로 문화인류학의 방법으로 음식문화 연구에 정진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술의 사회사적 의미를 밝히는 책을 펴낼 예정이며, 10여년 후에는 한·중·일 동아시아 3국의 음식문화론을 완성할 작정이다.

— 김중식 기자